



오징어 말리기 좋은 날 20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에서 한 어린이가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오징어 말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2026 청소년 로보틱스 챌린지 제주 예선 교육부터 실전까지… 내달 23일 제주대서 진행

제주 청소년들이 미래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경험하며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도전의 장이 마련된다. 8월 23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리는 '로보틱스 기초 제주 예선'이다.

이번 대회는 '2026 전국민 AI 경진대회 청소년 로보틱스 챌린지'의 제주지역 대회다. 우수 참가팀에겐 오는 11월 열리는 본선 대회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제주대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가 후원하는 제주 예선에는 로봇 체험 경험이 없는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 미션, 챌린지(대회) 연계형으로 치러지면서다.

도내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4~6학년부터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용 로봇과 경기장 등 대회에 필요한 장비도 현장에서 지원된다.

참가자 전원에게 간식과 수료증, 기념품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3일까지이며, 2~4명으로 팀을 구성해 '전국민 AI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오름 땅속에 산방산급 거대 화산체 발견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더데오름 인근 시추조사서 확인 지하 221m 구간 조면암 연속… 화산 형성사 밝힐 단서

제주지역 더데오름 지하에 산방산에 버금가는 거대한 용암돔 흔적이 발견됐다. 이는 더데오름이 겉으로는 높이 228m의 야트막한 오름처럼 보이지만 지하에는 산방산급 거대 화산체를 품고 있다는 뜻이어서 제주 화산 형성 과정을 새롭게 밝힐 단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서귀포시 상예동 더데오름 인근 지하에서 산방산에 버금가는 규모로 추정되는 거대한 고기(古期) 조면암질 용암돔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더데오름 북동쪽 약 200m 지점에 구멍을 뚫어 지

표 아래 330m 지점까지 시추하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을 발견했다.

세계유산본부 측은 더데오름 인근 지표에서 약 109m 깊이까지는 여러 매의 용암층과 퇴적층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부터 지하 330m지점까지인 221m 구간에선 더데오름을 구성하는 암석과 동일한 조면암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를 토대로 더데오름 지하의 용암돔이 최소 해발 -132m 지점부터 정상부(해발 228.4m)까지 이어지는 360m 이상의 규모를 갖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고도 395m, 비고 345m인 산방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유산본부는 더데오름이 과거에는 산방산과 같은 거대한 용암돔이었지만 오랜 시간 주변 용암류에 덮이면서 지금과 같은 낮은 오름 형태만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는 지하 330m 지점까지만 시추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시추에서도 동일한 암석이 확인되면 실제 지하 화산체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세계유산본부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더데오름 용암돔이 산방산의 현재 기저(해발 50m)보다 182m 이상 낮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산방산과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형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채취한 암석 시료를 정밀 분석해 정확한 형성 연대를 밝혀낼 계획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더데오름 지하 화산체와 산방산을 비롯한 제주 남서부 조면암질 화산체의 형성 관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표에서는 작은 오름으로 보이는 더데오름의 지하에 거대한 조면암질 화산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제주 화산활동의 역사가 현재 지표에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고 입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시추코어는 제주 땅속의 화산활동이 기록된 귀중한 연구자산으로 한 번 소실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시추자료가 제주 화산활동사를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한수풀도서관·송악도서관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이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수풀도서관은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생각이 자라는 여름 독서 교실'을 연다.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활용한 독후 활동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주연 책놀이지도사가 함께하며 읽기·쓰기·말하기 활동이 어우러진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이다.

송악도서관은 '운동에 킁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방학 기간 돌봄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4일부터 14일까지 8회에 걸쳐 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되며, 독서와 놀이 체육 활동이 더해진다. 모집 인원은 초등 1~2학년 10명이다.

두 도서관 모두 21일 오전 10시부터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외부인 침입 막을 '학교 안전 대책' 나오나

제주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자문단' 첫 구성 20일 첫 회의서 학교 현장 실태 관련 의견수렴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인데, 문제의 시급성에도 대처가 안 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교육청 별관에서 '학교출입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관리 자문단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달 자문단이 구성된 뒤 첫 회의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수렴한 자료에 더해 자문단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중장기 안전 정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자문단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과 달리 교육활동 중에도 학교 자유 출입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한데도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안 보인다라는 지적이다.

한정우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외도 범되지 않지만 제주는 교권 침해 사안이 유독 많다"면서 "학교 정문이 없거나 출입 관리 인력이 5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지금의 상태에선 학부모가 약속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에 들어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올해 2차 추경안에 CCTV 설치를 제외한 학교 출입 안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최소한 안전 진단이나 (시설 보완이) 시급한 학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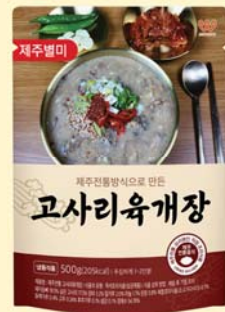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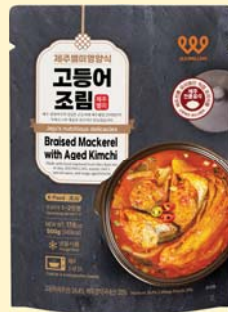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